

對共協商戰略

1972.7

대 공 협 상 전 략

목 차

서 문

- 제 1 장 협상의 해부
- 제 2 장 소련의 협상모델

제 3 장 중공의 협상모델

제 4 장 협상의 지침

서 문

세계의 평화애호가들은 미국이 공산국가들과의 대결의 시대에서 벗어나 협상의 시대로, 즉 「스탈린」후계자들의 위장된 정치전쟁을 초월한 협상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실로 전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레닌」이나 모택동이 만든 교리의 감옥에 갇힌 중·소의 이론가들이 진정한 화해를 모색하려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할 것인지는 의문스럽다(“화해”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중공과 소련의 반미선전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산국가와 비공산국가—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부르는 “제국주의진영”의 국가들간의 대립된 가치체계와 뿌리깊은 이념대립이 오늘날 낙관주의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쉽사리 해결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아스러워 하고 있다.

닉슨대통령이 지난 2월 중공지도층과의 장기에 둔 첫수의 결과는 현시점에서는 완전히 밝힐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중공정상회담에 대해 아시아의 변연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적지 않은 외교적 실의는 우리가 북경에서의 대좌에서 얻은 아직도 불확실한 이득에 대해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대가란 우리의 계속적 방위임무에 의존해야 할 우리의 동맹국들간에 일어난 심리적 불안을 말한다. 공산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들이 수반되는가? 조정이나 타협과 같은 용어가 투쟁과 변증법의 범주내에서 사고하도록 틀어지워진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레닌」주의자나 모택동주의자에 있어서 협상이란 중요한 상이점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인가, 아니면 “다른 수단에 의해” 적을 고립, 훼손하는 기술인가? (아니면 심중판구 그 둘을 동시에 뜻하는 것인가?) 미국은 이미 소련과는 많은 협상 경험을 가져왔으며, 중공, 북한 및 (최근에는) 월맹과도 약간의 협상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 공산국가들과의 협상에 미국대표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협상경험담을 책으로 출판키 위해 기록해 왔다. 본 논문에서 「제랄트 L. 스타이벨」박사는 기왕에 발표된 문헌들을 조사, 분석하고 이전에 공산국가와의 협상과정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요약하고 있다.

그 결과 본 논문은 공산국가의 협상 대표들이 쓰는 전략과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공산국가들과의 협상에서 때로는 약간 쓸모있는 결심을 얻기도 하지만 그같은 공산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소련과 중공이 갖고 있는 팽창주의 정책과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주요한

분쟁의 쟁점을 제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력 균형을 변경시킨다거나 공산당 간부들의 거센 정치전쟁공세를 완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스타이벨」박사가 결론짓고 있는 바와 같이 다원적인 민주국가와 전체주의 국가간의 상이와 격차를 고려할 때 공산국가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협상이 순수한 친선을 증진한다는 명제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스타이벨」박사는 현재 「아메리카연구소」의 교문제연구담당이사로 있다. 그는 또한 「콜럼비아」대학교, 「뉴욕」주립대학교 및 「뉴욕」시립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자유 유럽위원회 연구이사로 지낸 바 있는 「스타이벨」박사는 공산권문제 및 국제관계에 관해 많은 논문을 발표해 왔다.

1972년 3월

프랑크 R. 바네트
국가전략정보센타소장

1. 협상의 해부

급격한 상황변동

언젠가 「워싱턴 어빙」은 협상이란 마치 한 양심적인 강도가 전에 같으면 노골적인 폭력을 휘둘러 차지했을 재산을 놓고 속임수 잘 쓰는 이웃 강도와 논쟁을 벌일 때는 조용하고 훌륭한 시민인 것처럼 행세하듯이 어떤 국가가 협상을 통하지 않고는 무력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될 경우, 평화적인 술책과 회피라는 속임수로 그것을 피하는 이득을 얻기 위한 교활한 행위이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다.

매우 유능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정치 실무자나 연구학도들은 이같은 「어빙」의 말의 뜻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이같은 냉소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협상은 대중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불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미·소·중공간에 취해진 협상의 이니셔티브에서 기인한 것이다.

현대 세계에 있어서, 특히 현대세계의 대적하는 강대국들에 있어서 협상이란 신기한 것이 아

니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이들 강대국들간에는 상호접촉이 끊긴 적이 거의 없다.

강대국들이 협상의 도마위에 올려 놓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은 수년동안 거래를 끝어온 것들로서, 이를테면 월남문제, 베르린문제, 통상문제, 관광, 문화교류, 무기통제문제 등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닉슨대통령은 "대결에서 협상으로"라는 원리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상이라는 행위와 어떤 특별한 협상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결실과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닉슨」대통령의 안보담당특별보좌관, 헨리·키신저박사의 최근 브리핑(「닉슨」대통령의 북경방문결과에 대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정부는 북경회담에서 미·중공간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콤미트먼트」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또 미·중공간에 상호입장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이 협상을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같은 협상의 행위와 결실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경은 「닉슨」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라는 격언을 외면하고 하급수준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상 외교를 전개할 결정을 내린데서 더욱 잘 이해된다.

초대국들간의 대량 접촉은 협상의 전 과정은 은폐해 버렸으며, 위어강대국과 그의 동맹국들간에, 그리고 동맹국들간에, 또 동맹국과 적대국간에 제2의 충격파로서 복잡한 기류를 흐르게 했다.

「키신저」가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구동맹의 문자는 지켜질 것이지만 동맹의 정신은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 즉 「키신저」는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그들의 중대한 이익이 어디서 영향받는다고 믿는가를 배우고자 할 것이다……우리는 그들에게 거부를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초대국들이 자기 그들의 동맹국들에게 의문과 불안을 불러 일으킴에 따라 초대국과 동맹을 맺고 있던 중소국가들은 그들 스스로 새로운 「게임」을 갖기 시작했다. 즉 서구국가들은 이들 초대국에 대항하는 "10대국으로서 그들끼리 회합을 갖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

는 그들의 옛날 원수인 「알바니아」와 종래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종의 “축”을 형성하려 하고 있으며 소련의 「아랍」지역 동맹들은 그들간에 새로운 유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태국은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 합세하여 아시아에서의 중립주의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에도 조금씩 화해의 기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과 소련은 양국간에 2차대전을 결산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가지 협상망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국가망의 기존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내적 관계상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 그 질적 변화의 일례를 들면, 그러한 관계가 종전과는 달리 훨씬 세계적이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유럽지역의 문제에 대한 거래는 중동지역에서의 협상이나 인도 아시아대륙에 대한 협상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서독의 대소, 대파, 대동독 조약들의 내용은 보다 큰 유형의 쌍무적 및 다변적 동·서 협상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한 이들 제국들이 대담성과 자발성에도 불구하고 3초대국은 중소국가관계의 결과로 인해 모욕을 당할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결과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런 변화가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혁명이랄것 같으면 그것은 아직 초기의 탐색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협상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모든 종전의 가정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가정 가운데 어느 부분이 버려질 것이며 어느 부분이 보강 혹은 변경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설이 받아들여질 것인가는 분명치 않다. 협상과정 자체에서 어느 것이 성공적이며 어느 것이 성공적이지 못한가가 실험 규명될때까진 아래와 같은 몇가지 기본적인 질문은 계속 미해결로 남을 것이다.

1. 새로이 고취되고 있는 이들 협상활동은 협상을 전쟁에 대치시키겠다는 그들의 주요 기대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비추어 보면 그것은 크게 의심스런 바이다.

2. 만일 협상이 큰 전쟁에 대한 대안이라면

그것은 또한 “민족해방전쟁”과 같은 소규모 전쟁에 대한 대안도 될 것인가? 중공과 소련의 수사나 행동에는 그들이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듯한 근거가 거의 없다.

3. 소련의 군사력 증강과 중공의 핵력개발에 비추어 볼때 서방측이 갖고 있는 협상의 강점은 무엇인가? 서방측은 어떤 수락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고 공산측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4. 서방측과 공산측의 협상모델은 정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즉 서방측과 공산측이 “협상”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의미가 같은 것인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서방측이 말하는 협상과 공산측이 말하는 협상간에는 건너야 할 큰 차이가 있다.

5. 각자의 협상모델과 경험을 통해 서방측이 장차 공산측과 대좌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무슨 지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수년동안 어떤 “협상의 세계”가 나타날 것인가?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과 같은 단절의 시대에 있어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전적으로 무오류의 안내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역사적 경험을 식견을 갖고 접한다면 그것은 유용한 자료가 될뿐만 아니라 안내도 없는 분야에 대한 그같은 협상이라는 모험에 어떤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희귀한 교훈이 될 것이다.

협상의 세계

1630년대에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은 승리없는 “30년전쟁”에 점차 피곤해졌으며 누가 나타나서 그의 중재하에 전쟁을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당시 「베니스」공국은 「스웨덴」이 그의 여왕명으로 보낸 친서에 답장을 보낸 가운데 30년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도 당시의 3강국을 무시했으며 따라서 그같은 「베니스」공국의 제의는 무시되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그후 회회의 배열, 의전, 순서, 테이블의 모양, 좌석순서 등등을 놓고 10년 이상의 논쟁을 거친 끝에 강대국들은 「웨스트팔리아」에서 열리

는 공동회의장에 그들의 대표를 보냈다. 거기서 얻어진 것은 2~3년간 지속될 평화조약과 그리고 3세기간 계속되어 고전적 「모델」이 된 협상 방식 뿐이었다. 그러한 협상방식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떠나와 본국과의 교신이 잘 안되고 따라서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협상특사들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협상특사들은 비범한 재주를 가진 인물들이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자기 국가의 이익을 가능한 한 크게 주장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거래의 결과는 언질의 교환에 의해 좌우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입장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약간 공허한 언질들은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의 외교관 「해롤드·니콜슨」은 「루이」14세 치하의 「프랑스」가 한때 「스페인」과 줄곧 전쟁상태에 있었던 이유로서 당시 「런던」에 주재하는 「스페인」대사가 「런던」주재 「프랑스」대사 면전에서 처신을 잘못된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

고전적 모델의 외교협상에서는 같은 취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 또는 작성치 않는 과정이 전적으로 비밀에 부쳐졌다. 그 결과는 전쟁이냐 평화냐이었겠으나 거기에는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따라야 할 규칙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 그같은 협상에서는 비록 전쟁이라는 것이 회생이 많고 무서운 것이지만 전쟁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평화로부터 도출되었다. 일단 군대가 출진을 하면 협상모델은 열으로 물러났다. 또 전쟁이 끝나면 협상모델은 다시 활기를 찾았으며 협상대표들은 완전한 이해에 입각하여 다시 일을 시작했다. 지난 3세기동안 협상의 고전적 모델이 지속되어 온 것은 그것이 구민족국가들간의 생태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또한 민족국가들의 협상회의가 그들 각국들이 그러한 협상에 익숙할 만큼 오래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의 고전적 모델은 그들 형성케 했던 제조선이 급격하게 변화하자 붕괴되었다. 첫째, 통치권력의 분산은 협상에 입하는 왕이나 특사를

구속했다. 다른 여러가지 제도와 마찬가지로 협상이라는 것도 직업적 협상가들에 일임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같은 고전적 모델을 발명, 완성했던 강대국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초대국이 등장했다. 기술혁명 또한 협상모델에 변화를 초래했다. 기술혁명에 따라 전쟁은 더욱 파괴력이 커지고 따라서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강화조약의 테두리안에 묶어 두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쟁의 피해는 선전포고된 전쟁과 전쟁사이의 평화기간에까지 파급되어 19세기초 「클라우세비츠」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고 말한 격언을 무색케 했다. 또한 20세기에 와서 신문, 라디오, T.V 등 「메스·미디어」의 폭발적인 증가로 국제적 접촉을 외현화했고 이같은 현상은 협상대표들의 비밀의 언막을 찢어 버렸고 그들의 국제교통계획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했다.

이같은 중요한 변화의 결과 협상의 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매우 상이한 동기를 갖는 협상참여자의 무리를 만들어냈고 다시 17세기의 협상모델과 비슷한 새로운 협상모델이 모색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야기된 몇가지 두드러진 협상모델의 변환을 인용하는 것이 유익할것 같다.

첫째 오늘날에는 매우 많은 수의 공식 협상대표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한다. 그중 일부는 평생을 그에 봉사하는 직업외교관이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사명을 위해 다른 분야에서 차출된 자들이다.

이들 대규모 비직업적 협상대표들은 핵전략무기제한회담(SALT)이 열리는 「빈」이나 「헬싱키」에서 그리고 25개국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협상이 열리고 있는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있는 「브루셀」에서 발견되며 이들 제회의와 협상에서 미국은 타국과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협상대표들은 민간인들이 작성한 협정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군인 장교들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평범한 일반시민도 흔히 협상체들

에 많이 참가해 왔다. 그들 일반시민들은 세계 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 기타 유엔의 전문기관에서 일을 맡는다. 이들 시민들은 때때로 그들의 본국정부를 불쾌하게 하는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channel을 만들기도 한다. 미국의 급진주의자들이나 여행자 또는 언론인들은 미국이 날카로운 협상을 벌리고 있는 국가들 이를테면 월맹이나 「쿠바」, 「모스크바」 등을 방문하고는 주의를 모으긴 하나 말하기 난처한 문제들을 가지고 돌아온다.

예를 들면 월맹은 때때로 월맹을 방문중인 미국의 좌익계 인사들에게 그들이 억류중인 미군 포로를 변회시키곤 하는데 월맹은 그같은 수단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주월미군의 무조건 철수 요구를 더욱 강력히 시도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 역시 좀 다른 방법으로 일반시민을 이용해 왔다. 한 대학교수는 상원의 한 분과위원회에서 소련과의 학자교환계획을 설명하면서 그같은 교환계획은 소련이 항상 거부해 온 기타의 다른 관계의 개방을 막는 쉐기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인 학자교환계획은 미·소 양국의 기타 다른 정책의 특징을 측정, 결정하는 열쇠 또는 실험도구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협상에 징발된다. 소련의 신문기자 「빅토르 루이스」는 「닉슨」대통령이 그 자신의 소련방문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런던의 「이브닝·뉴스」紙에다 「닉슨」대통령의 소련방문 이야기를 터뜨렸다. 「루이스」는 그 신문기사에서 “평화를 위한 경주가 진행중이라”고 논평했었다. 또한 호주의 좌익기자 「윌프 페르 베헤트」역시 중공의 선전정책의 안내역으로서 또는 도구로서 역할해 왔다.

미국의 저명한 TV 논평가 「존 스칼리」 또한 1962년 당시 「쿠바」 「미사일」위기 때 「후르시초프」 소련수상의 협상제의를 「케네디」대통령에게 전달하므로 미·소 협상의 중개역할을 했었다.

오늘날의 협상에 있어서는 제 3자의 중개연결 또한 눈에 띄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엔본부 논자주 「메시저」가 오가고 거래제의를 주고 받는 장소가 되어 왔다. 1955년부터 시작

된 「제네바」와 「바르샤바」에 있는 미국과 중공의 외교대표들간의 150회 이상의 회담은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않은 미·중공간의 비공식 통로를 제공해 왔다. 이들 미·중공 외교관들은 훗날 「닉슨」대통령의 중공방문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유고슬라비아」와 인도의 지도자들 또한 자주 중재역을 맡아 왔다.

오늘날에는 행정부 수반들의 개인외교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때가 되면 더욱 유행한다. 직업외교관들은 그같은 수반들의 개인외교가 나중에는 걸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지만 수반들은 그같은 경고를 아랑곳 않는다. 1955년 이후 동·서 국가원수들간의 정상회담은 매우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공산국가들은 그같은 정상회담을 서방의 대중들에게 관계정상화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용해 왔으며, 그 반면에 서방측은 그같은 정상회담을 일종의 “썰기”로 보았다. 1955년 「후루시초프」는 「제네바」정상회담을 소련의 「이집트」에 대한 군사개입을 위장하는데 잘 이용하였다.

1959년 「후루시초프」는 또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정상회담에서 「베르린」에서 미국이 손을 빼도록 하기 위한 협상을 벌렸다. 그러나 이때는 실패했었다.

오늘날에는 또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협상도구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1949년 「스탈린」은 그에게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자기가 「베르린」봉쇄를 취한 소련의 입장을 변경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무장관은 또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이 그같은 「스탈린」의 말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에 뒤이어 「베르린」위기가 끝났다. 「프랑스」의 「드골」대통령은 1963년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EEC 가입을 거부했다. 미국의 「존슨」대통령과 「닉슨」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월맹에 대한 북폭강화를 경고하기도 하고 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속된 만큼 북폭을 약화시켜 월맹을 달래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의회에 대한 연설이 또한 국가간의 협상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후루시초프」는 1961년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국가간의 전쟁이나 국지전은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나 「민

축해방전쟁」은 굳세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연설했다. 곧 이어 정권을 인수한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그같은 「호루시초프」의 발언을 소련이 냉전대결의 보다 소규모의 안전한 수준에서의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받아 들었다. 「케네디」대통령은 이에 대한 회답을 했고 뒤이어 1961年 「빈」에서 미·소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실의 순간적인 공개 또한 핵위협을 거래의 조건으로 이용하는 협상「매너」를 변형시켰다.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때 미국은 매우 무서운 무기로 잘 선전된 B52 폭격기를 전시함으로써 소련으로 하여금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도록 설득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1970년 「닉슨」대통령이 「캄보디아」진격을 명령한 이유의 하나는 중동위기를 다룸에 있어서 미국의 진실성을 소련에 전달코자 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의 협상은 양측의 보호자인 미·소초대국을 끌어들이는 위협이 있는 전쟁을 재개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불러 일으키고 있었다. 핵억지력은 대부분이 적으로 하여금 조짐을 기하도록 하고 오산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일단 이 편에서 전시한 바 있는 무기에 대해 적으로 하여금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으나에 따라 좌우된다.

결론으로 오늘날에는 「하트·라인」이라는 비상전화선이 있어 모든 협상절차를 무시하면서 「백악관」과 「클레프린」궁을 연결시키고 있다. 양국대표들간에 오고간 사상의 대부분이 이를 통해서 순식간에 확인 또는 폐지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안된 이 「하트·라인」은 하나의 안전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꼭 같은 이유로 인하여 그것은 그러한 체제내에서 보다 큰 모험을 유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게임」의 용어를 빌어 요약하면 오늘날 협상은 신사들의 클럽에서 행해지는 「테니스」나 「체스」시합처럼 되었으며 더욱더 「스포츠」교제를 닮아가고 있다. 협상은 마치 수천개의 「하키 팀」이 자자 벌리며 수백만의 관중이 관람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하키」시합과 같이 되었다. 직업적 협상대표들과 그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늘날 그들의 유능한 기술

은 다른 어떤때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협력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휩싸게 만든 수많은 새로운 조류에 둘러싸여 있다. 이같은 상황을 경영학의 용어를 빌어 말하자면 오늘날 국제적 협상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에 짓눌려 있고 관료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아마추어」주주들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종전 나쁘진 바로 이같은 상황이 각국의 협상모델이 그들이 어떻게든 당면하게 되는 그들의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추구하면서 가능해야 하는 오늘날의 협상의 세계인 것이다.

2. 소련의 협상방식

세계관

대전당시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던 「W.애버렌·해리만」 주소미국대사는 「알렉시스·톨스토이」로부터 미소협상에 있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우화 한토막을 들었다.

이야기의 줄거리인즉 「러시아」의 한 농부가 한 나그네를 맞아드려 술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한 다음 이튿날 일찍 일어나 나그네의 목을 찌르고 돈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해리만」이 미소관계의 확장을 강력히 호소하면서도 이같은 우화를 상기시킨 이유는 소련인에게 외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의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같은 의심은 단시일내에 불식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과거나 현재나를 막론하고 소련인과 협상해 본 외국인이라면 모두 이같은 공동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에 대한 소련인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세가지 근본요소중의 하나가 바로 그같은 의심과 적대감이다. 두번째 요소로는 소위 반제국주의로 불리워지는 계급투쟁의 현대공산주의이론이다. 「레닌」과 「스탈린」은 과거 「러시아」의 역사적 사실을 의식적으로 들추어내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은 「러시아」혁명전의 시인 「네크라스프」가 외친 “빈곤하면서도 풍요하고 막강하면서도 무능한 나의 조국 「러시아」여!”

라는 귀절을 즐겨 인용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제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1918년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 서라도 「러시아」는 비참하고도 무력한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 진정한 의미의 강력하고도 부유한 국가를 이룩하는 것——그것만이 우리들의 공통된 불굴의 결의다.” 이점에 있어 「스탈린」은 보다 응변적이었다. 1931년 그는 과거 몽고·「터키」·「스웨덴」·영국·「프랑스」·「폴란드」·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손쉽게 짓밟고 착취했던 쓰라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레닌」은 반제국주의를 논할 때마다 “누가 누구를”(Who-whom)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1906년에 발표된 논문가운데서 「레닌」은 “누가 누구를 몰아내느냐 또는 누가 누구를 와해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1921년에는 이를 보충설명하여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자가 스스로 파멸하고 소련이 살아 남느냐 또는 자본주의자들이 살아남고 소련이 버림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련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이같은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단정했다. 1919년 「러시아」에 「발진티부스」가 창궐했을 때도 「레닌」은 이(虱) 이론을 적용하여 “이(虱)가 사회주의를 누르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虱)로부터 승리를 쟁취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었다. 그로부터 10년후 「스탈린」은 이 말을 받아 “우리는 「레닌」의 공식에 따라 살고 있다. 즉 누가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굴복시키느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우리를 굴복시키느냐 하는 것 말이다.”

소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본 서방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세계는 곧 적”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2중적 신념에 대해 증언한다. “소련은 국가간에 영원한 우호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외국인은 잠재적 적일 뿐이다” 이것은 「조지·F. 케난」전 주 소미대사의 말이다. 「아서·H. 던」전 대사도 “소련의 외국에 대한 독단적 적대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군축회담에 있어서도 최대의 저해

요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1966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소련정부가 발표하는 수많은 성명을 들을 때마다 그 성명의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오만과 두려움의 2중적 복합성을 교묘히 숨기고 있음을 본다” 또한 오랫동안 대소협상 경력을 갖고 있는 「필립·E. 모슬리」는 「안토니·이든」 전 영국의상과 소련외상 「V. 몰로토프」와의 협상에서 「몰로토프」가 최종 순간에 갑자기 태도를 일변함으로써 회담이 결렬되었던 일례를 들고 있다.

요컨대 소련은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 다음 6가지의 가정에 입각한 협상태도를 취하고 있다.

1. 적은 교묘할 뿐만 아니라 속임수를 쓴다.

따라서 적이 최종순간에 결정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일시적으로 던져주는 양보를 믿어서는 안된다. 적이 하는 말의 이면에 숨은 의도를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926년 「스탈린」이 말한대로 「「마르크스」주의 노동자들의 「슬로건」은 말을 신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말을 일단 철저히 검토해 봐야 한다……오직 바보들만이 말뿐인 말을 신용한다」. 소련외교관 「코발레프」가 저술한 “외교학입문”은 「레닌」주의자들의 “공개외교”를 권장하면서 협상문서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 표현된 내용의 외 것을 포함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적의 입장이 너무확고하다해서 소련의 입장을 이탈하는 언동을 해선 안된다.

소련은 1954년 이후 동구에 대한 소련의 「해게모니」가 서방 「부르조아」국가들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선 소련과 서방 측간에 심각한 견해차가 없기 때문에 동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상을 중대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3. 소련은 적과의 근본적인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모슬리」가 지적한대로 소련은 말을 신용치 않으며 다만 말이란 수식적인 진부성을 띠고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협상에서 서방측이 어떤 문제에 관해 타협안을 내놓을 경우 소련측은 당황하거나 냉소적이 될 것이며 상대방이 일찍부터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4. 소련이 추구하는 목적앞에는 윤리나 도덕이 없다. 1920년 「레닌」은 말하길 “우리의 도덕은 「프로레타리아」의 계급투쟁으로부터 나온다. 공산주의자들의 도덕은 계급투쟁에 봉사하기 위한 도덕이다”라고 선언했다. 「레닌」은 1년후 다시 이를 보충설명하여 “우리의 도덕은 묵은 착취사회를 파괴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프로레타리아」로 단결시키는데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소련전문가 「버나드·루이스」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죄악감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5. 소련은 협상에서 이상 열거한 모든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를 “자의식”속에 혼연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의식은 소련협상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기본조건이다. 자의식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되는 것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념에 근거를 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자의식의 반대는 “무의식”으로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적이 협상에서 소련대표를 굴복시키기 위해 소련대표의 무의식을 이용하려들 경우 자의식만이 이를 격퇴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6. 소련측협상대표의 머리위에는 언제나 후견인격인 소련공산당이 도사리고 있다. 일찌기 「레닌」은 당우위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스탈린」은 한결음 더 나아가 당우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특수한 바탕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수한 성분으로 구성되었다…… 당원이 겪어야 하는 긴장과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해가 거듭될 수록 소련 공산당의 지위는 굳어져 정부소관인 외교문제까지도 당의 입김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소련의 원로외교관인 「발레리안·조린」도 소련외교정책의 수행에 있어 당이 정부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71년 일련의 대서방외교에서도 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정부내에 아무런 공식직위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가

장 중요한 해외여행 등 협상의 사령탑구실을 했다. 소련대표와 협상하는 것은 곧 소련공산당 지도층과 회담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거나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다고 서방의 외교관들은 지적한다.

이상 열거한 소련측 기본입장으로 비추어 보아 소련과의 협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남은 문제는 「레닌」이 말한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간의 “무서운 투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의구심과 비타협으로 대표되는 소련의 협상태도 한구석에는 제 3의 요소 즉 고도로 발전된 실용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레닌」을 비롯한 많은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와 이론으로 무장되었다. 「레닌」은 언제나 전략가인 동시에 전술가였으며 권력을 잡고 또 유지하기 위해선 때때로 치뤄야 될 희생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레닌」이 죽고 나서도 그의 교훈은 후계자들에게 전수, 적용되어 오고 있다.

소련문제전문가 「네이던·리츠」가 증언하고 있듯이 「레닌」의 “누가 누구를”이란 용어는 항상 누가 누구를 파멸시키느냐는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는 “누가 누구를 반대하고 있느냐”는 등 온전한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협상에서 “후퇴”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후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1922년 「레닌」은 말했다. 한편 「스탈린」은 1927년 중국공산당의 패배에 언급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하는 자만이 항상 적에 대한 즉각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는 올바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은 그 후 1938년 「레닌」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최후순간에 어떻게 후퇴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부연한다.

후퇴란 전면적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소련지도자들의 공약에 모순되는 개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리츠」는 공산주의자들이 “후퇴”와 “굴복”이라는 말에 커다란 개념상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후퇴할 경우 이는 결코 굴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의 엄격한 차이를 갈라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이긴 하지만 이 차이는 적어도 군사전문가 「토마스·울프」가 말하는 “전략적 대화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전략적 대화는 걸음으로 보기에 순전히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비밀 접촉을 통해서만 태도를 대폭 전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소련의 공식성명에 나타나는 서방측에 대한 인상은 서방측의 전략과 의도를 세밀히 알고 있는 소련지도자의 인상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울프」는 결론짓는다.

이같은 전제들로 미루어 볼 때 소련의 대외협상목적은 최대와 최소 사이를 자유자재로 내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대목적은 물론 「부르조아」제국주의의 대서방투쟁에서 전면승리를 거두는 것이고 최소의 목적은 보다 큰 목표들이 실현될 수 없을 때 소련의 국리만이라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최대와 최소의 개념은 소련정부가 발행한 “외교사전”속에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소련외교는 전세계의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에 대한 동정과 지지에 기저를 둔다. 소련외교는 제국주의정부의 침략야욕과 그 야욕을 은폐하기 위한 외교적 책략을 들추어 내어 모든 인민들로 하여금 실상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곧 이어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이 따르고 있다. “사회주의 외교는 신축성을 원칙으로 하여 협조와 합의에 필요한 모든 용의를 갖추고 있으나 소련이 적용가능한 외교정책원칙의 한계를 벗어나진 않는다.” 이 사전의 주장에 따르면 외교란 정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학적 결론에 입각해야 된다. 그러나 유동적인 실제상황속에서 확고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키 위해선 그같은 과학적 결론은 기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폐렬해가는 특수제급”을 위한 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부르조아」외교로선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코발레프」는 그의 “외교학입문”에서 소련외교문서가 2개의 방향 즉 정부와 인민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상이한 두체제간의 외교는 특수한 목적을 두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극히 상이한 협상체제간의 근본적인 대치를 노정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휴스턴 대학의 「조셉, 노기」교수는 이같은 실패로서 원자력통제문제를 논의키 위해 소련과 서방국가들이 「유엔」원자력위원회에서 자리를 같이했던 당시를 회고한다. 「노기」교수의 보고서는 소련이 다음 5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해 회담에 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1) 표면상으로 내색하지 않고 미국의 원자력에 관한 제의를 거부한다.
- (2) 소련의 정책과 전세계인민의 염원을 연결시킨다.
- (3) 서방 「불력」 특히 미국의 정책이 침략적이라는 점을 널리 알린다.
- (4) 미국이 원자력 우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 (5) 협상에선 지연작전을 적용한다.

또 다른 예로 최근 들어 소련이 서독·중동등과 대담한 협상을 벌리는가 하면 유럽 안보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샤피로」는 이같은 소련의 적극적 움직임이 서방측으로부터의 양보를 기대함과 동시에 미국의 의향을 떠보기 위장 전이라고 분석한다. 「울프」는 이같은 일련의 협상을 통해 소련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5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소련의 전략적 핵제어력을 두려워 할 것이며 당치도 않게 화해 「무드」를 퍼뜨리려고 하지 말라. 둘째 어떠한 행동도 소련의 견고한 지위를 허물 수 없음을 깨닫고 서방측은 세계도처의 전략기지로 부터 철수함이 마땅하다. 셋째 미국은 소련의 핵선제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울프」는 마지막 다섯번째 「메시지」를 소련은 긴장과 화해노선중 어느 것이 더 소련의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아직 확실히 결론짓지 못했다는 불확정성을 상대국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요컨대 궁극적 목표는 분쟁에 있지 않으며 협상의 성격에 따라선 신축성이 있을 수도 있어 소련의 입장이 그렇게 전적으로 완고하게 굳어진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샤피로」는 이같은 행동유형이 아무런 「매스터·플랜」없는 단순한

부단한 움직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풀이한다. 이같은 태도는 협상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선택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려는 입장이다. “전쟁”과 “정치”는 같이 쓰여질 수 있는 교환개념이라는 「클라우세비츠」의 고전적 이론을 정리하여 「리츠」는 이것을 “협상에 의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마크스」의 변증법을 적용하여 신축성과 강경론을 동시에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소련의 협상 전략 및 전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협상의 전략과 전술

「러시아」는 협상술에 서툰자가 아니며 숙련되고 효과적인 협상기교에 낯선 국가도 아니다. 「러시아」의 정부특사들은 일찍부터 동방의 군주들과 접촉했으며 16세기까지는 서구와도 협상했다.

사학자 「고든·크라이그」는 「러시아」와의 협상은 간혹 성공적이긴 했으나 「항상 까다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러시아」특사들은 상세한 훈련을 후대했으나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본국정부의 상관들과 갖는 협의는 자주 중단되었다. 게다가 그들의 태도는 때때로 잔악했다. 그들은 인간 이하로 처신했으며 그들에게 배정된 「아파트」를 파괴하거나 가구를 부서버림으로써 「러시아인」의 야비함을 서방에 널리 알렸다.

그러나 그들은 19세기에 와서 태도를 세련시켰다. 1854년 「크리미아」전쟁과 1877년 「러시아」 「터키」전쟁을 종결하는 회담에서 「러시아」특사들이 성취한 업적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상실했던 많은 부분을 다시 찾게 되었다.

1917년 새로운 「볼셰비키」정권은 「술책과 암호 및 거짓」으로 특징지워지던 구「러시아」외교를 없애려 했다. 전「러시아」 「소비에트」대회는 1917년 11월 8일 협상은 「전인민앞에서 절대 공개리」에 실행될 것임을 포고했다. 이 포고는 문서상에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다. 1920년까지 황족의 외교는 고전적 형태로 복귀했으며 그후 수년동안 외교적 기교와 신뢰의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은 1.2차

대전사이에는 줄곧 국제외교계에 마지못해 참석하는 정도였다고 「크라이그」씨는 지적한다.

서방측은 회의와 연장. 고집 등 전통적인 「러시아」의 장애물과 씨름해야 했다. 「러시아」가 과거 1917년처럼 외교적 사명을 확신하고 외교적 힘을 인식하여 다시금 「부르조아」사회에 대한 확고한 반대의사를 발표하고 서방측이 소련과의 협상이 정말로 까다롭다는 것을 인식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난 뒤였다.

지금까지 서방측은 소련의 협상기교가 예상했던 바 상당히 훌륭한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해 왔다. 아직도 때때로 갑작스러운 혼란과 혁신 또는 돌발적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다. 소련의 협상자들과 상대한 사람들의 논평과 회고담을 간추려 보면 소련의 외교수법의 특징을 대충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하면 소련의 협상방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의제 : 소련은 공식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의제를 확정하려 한다. 서방측은 의제를 무엇으로 하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하느냐는 것이 대소련협상자체의 상당부분이 되고 있음을 여러 번 발견했다. 「모슬리」는 소련의 1946년 「유고」 「이탈리아」국경문제에 관한 의제의 문안을 둘러싸고 수주일동안 어떻게 나왔는지를 상세히 기술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트리에스트」 주변의 「이탈리아」인 소수파에 어떤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영·미군의 「트리에스트」지역 개입때문에 소련이 결국 양보하여 협상이 시작되었다고 「모슬리」는 지적하였다. 한편 「크라이그」씨는 소련이 1929년 영국과의 국교협상시 그들의 의제를 고수하여 이익을 보았음을 상기시킨다. 미·소전략무기제한회의에서 소련은 이 회담을 방어용무기에만 국한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의제에 공격용과 방어용 무기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 원칙합의 : 이 전술은 협상자들을 까다로운 세부 문제에까지 파고들게 하기 위한 것으로 소련이 그들의 외교기교중 가장 신뢰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서는 1945년 「폴란드」의 연립정부에 관한 「얄타」협정인데 소련은 「폴란드」의 비공산

다수에게 어느정도 광범위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 다음 그 후 수개월동안에 당초 협정에 90%를 수정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데 성공했다고 「모슬리」는 기술했다.

「딘·애치슨」전미국무장관은 1955년 「제네바」 정상회담을 상기하면서 이 회담에 임한 소련의 목적은 추가로 적극적인 공세가 중동에서 시작될 수 있게끔 서방에 선의와 해이감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1971년 서독은 독·소불가침조약과 4대국 「베를린」조약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소련과 합의했다고 간주했으나 「안드레이·그로미크」소련의상은 그해 「유엔」의 비공식토의에서 소련정부는 서독이 4대국 「베를린」협정과는 상관없이 독·소불가침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 협상「페이스」: 소련 협상자들에게 시간은 표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더·딘」은 「제네바」회담에서 「쿠즈네초프」소련부외상이 토의안건에 적합하던 압력간에 공산주의이론의 여러 특징을 장시간에 걸쳐 유쾌하게 토의하기를 좋아했음을 상기시켰다. 「애치슨」은 이러한 지연전술의 주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을 허약케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소련과 일부 잉여전쟁자산처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협상을 끝낼 길이 발견되었을 때를 하나의 성과로 간주했다고 술회한다.

소련의 이같은 전술의 한가지 특징은 상대측의 일부 발언을 붙잡고 늘어져서 그것을 다른 목적들에 휘말려들게 하는 경향이다. 「딘」은 이러한 예를 두가지 들었다. 즉 핵실험금지조약이 예비협상단계에 있던 1959년 당시 영국의 「맥밀린」수상은 「호루시초프」소련수상에게 3회나 같은 식으로 현장조사회수를 규정할 것을 제의했는데 「호루시초프」는 즉각 현장조사회수를 3회로 하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문제를 토의하기를 거부했다.

그후 1962년 소련은 미국과 그러한 제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1년에 2,3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미국이 제의한 양 미국이

실제로는 제의하지 않은 제안을 전반적인 협정의 기초로 삼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전 사무총장 「더그·스티커」는 소련이 사전에 반드시 관찰시켜야 하는 항목 명단을 준비하여 협상에 임하는 것 같으며 그들은 한가지 항목이 그들에 만족하면 이어 다음 항목을 과철시키려 들 뿐 그들이 이전에 말했던 것은 망각해 버린다고 말했다.

4. 「이미지」투사: 협상회의를 공개외교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협상의 실질문제와 관계가 없는 상당한 효과발생을 노린다. 소련은 이 방면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노력을 기울인다.

a. 그들은 소련만이 아닌 전사회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와 「엔겔스」는 「게르만·이데올로기」에서 현대세계는 점점 더 관념적 「아이디어」가 지배하고 있으며 혁명계급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동이익으로서 그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이그」는 이러한 보편화전술이 방관적인 제3국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b. 그들의 막강한 힘을 투사한다, 「케난」은 소련의 외교기법이 전반적으로 동양의 그것과 같으며 상대방이 소련의 힘을 적용하는 정확한 경로와 수단에 관해 확실치 못하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소련의 무서운 힘을 감동시켜 소련의 모든 욕망과 견해를 특히 존중하여 고려토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c. 그와 동시에 냉소적이고 파렴치한 그의 상대방들과 대조적으로 소련은 덕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크라이그」는 특히 「호루시초프」가 동서협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딘」은 소련자신의 정직함에 대한 그들의 이같은 거의 종교적인 확신은 사태의 전반적인 추세가 실제로는 그들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깊은 의심에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5. 반미국주의: 소련은 미국이 국제회의에서 다른 국가의 행동을 저지한다고 누누히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이 서구국가들간의 막연하고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

는 부분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모슬리」는 말한다 그것은 소련을 당황케 하여 그들이 미국의 위압 정치를 비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샤피로」는 소련의 반민주주의가 모든 공산당을 한데 연결하는 주요 기반의 하나이며 실제로 그것은 다른 여러 국가의 환심을 아울러 사고 있다고 말한다

6. 협상행동: 소련협상자들의 개인적 행동은 올바르고 때로는 정중하기도 하지만 거친 태도가 전적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라이테스」는 이것을 방위기제로 보았다. 즉 위협적인 적에 구두공격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결의에 대한 적의 판단을 과장토록 하여 적자신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 자신 노조투쟁의 「베데탄」이었던 「에른스트 베빈」 전영국의상은 1947년 외상회의가 끝난뒤 “우리나라가 오늘 하오처럼 모욕과 욕설을 받게 될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흐루시초프」의 장광설은 아직껏 서방측에서 잘 기억되고 있다. 「호르시초프」는 1959년 독일에 관한 미묘한 협상이 벌어질 「제베바」 외상회의를 앞두고 「알바니아」의 「티라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아데나워」 서독수상을 『보짜리 상인』이라 부르고 「아데나워」와 「폴·브렌타노」 서독외상을 가리켜 소장인배이라고 말했다.

소련의 외교활동에 관한 전문가인 사가 「토마스·도노반」은 서방측 협상자들이 상대한 소련 외교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막실 리트비노프」가 훈련하고 가르킨 구소련 외교관의 대부분은 없어지고 그들의 직책은 직업당원과 정보원이 차지한 반면 그들 이외의 직업외교관은 「시베리아」로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2차대전후 직업외교관은 당국의 귀(耳)가 됨에 있어 정보기관과 경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말해 소련이 첩보활동에 몰두함으로써 구식외교관들이 외교계의 일반규칙을 이행하거나 또는 타국의 생활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모색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했다. 게다가 서방측 협상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소련의 협상자들은 때때로 본국상관의 대변자로서 그가 위임받은 것을 협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서방측으로부터 나중에 더 큰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소련도 「양보」한다는 구실로 이용할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외교관은 사실 협상상대자와는 전혀 다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호 과

이러한 요소로부터 소련의 협상 「모델」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과 같고 소련의 협상목적이 완전히 파악된다면 서방과의 협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양식이 될 것이다.

1. 소련의 협상상대자는 소련이 고르고 지정한 장소와 시기에 나오게 될 것이다.

2. 소련의 협상자들은 약간의 토의 끝에 채택된 회의의지를 발표할 것이다.

3. 소련측은 협상상대방에 대한 일련의 비난을 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박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다.

4. 공산사회와 비공산사회 「미디어」에 회의진행이 최대로 공포될 것이다.

5. 소련은 그의 실질적 요구를 발표할 것이며 서방측은 약간만 수정한채 결국 그들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

6. 소련은 자기의 결정에 따라 합의성과가 없게할 선택권과 회의질차를 지연시키거나 종결시킬 선택권을 보유한다.

물론 실제로 소련의 협상 「모델」은 이러한 식이 되지 않으며 또 소련측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 소련의 이론과 「이테올르기」가 일체의 협상가능성을 배제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목적과 전략 및 전술은 분명히 소련이 제시한 조건이외에 관해서는 합의될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끝맺음이 아마도 소련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술이다. 즉 그들의 상대자는 합의가 도달되거나 과연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코 알지 못한다.

소련의 수단에 의해 가보놓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서방측을 협상에 계속 응하도록 하는 것은 합의에 기대때문이다.

1958년 미국의 「포이·클러」특사는 우리는 특

수문제에 관해 소련정부와 장기적이고 까다롭고 그리고 표면상 가망없는 협상을 벌리면서 어떤 진전의 질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개월 또는 수년을 협상해 오던 중 갑자기 소련이 수시간이 내에 합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말했다.

1955년의 「오스트리아」협정은 이 경우 좋은 예가 된다. 즉 이 협정은 8년동안에 걸쳐 4백회의 별도회담 끝에 타결된 것이다. 핵실험금지조약, 외계우주와 해상에 관한 조약과, 서독과의 불가침조약 및 미·소전략무기제한 회담을 재개키로 한 결정 등은 모두 수년의 협상기간이 걸렸으며 그밖에 수많은 문제에 관한 여러 목제나 비공식 양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건 또는 결렬시키기 위해서건간에 소련이 협상을 종결키로 결정하는 이유나 시기는 전문가들이 추측할 문제이나 아무튼 소련은 말만큼 행동으로도 협상하여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자가 취하는 행동은 보다 폭넓은 외교「캠페인」의 한 단면이라는 「에치슨」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소련은 또한 힘의 현실이 논쟁보다 그들을 더욱 설득시킨다는 「에치슨」의 확신을 입증하고 있는것 같다. 「라이테스」가 설명했듯이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는 소련이 협상절차를 유산시켜 버리거나 일부분제를 해결지을 때가 도래했음을 객관적 상황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샤피로」와 「모슬리」는 소련이 안전한 한계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딘」은 소련 협상자들의 공개와 사적 발언을 비교하여 소련의 그러한 분별력을 발견했다.

요컨대 소련의 협상 「모델」에는 합리성이 있으나 그것은 서방의 합리성 개념과는 모순되고 다른 포괄적이며 폭넓은 오차내에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점은 두가지 추가적 사실이다. 즉 소련지도자들은 협상을 통해 이득도 얻은 반면 잃은것도 있었다는 점이다. 「프레드·찰스·이클레」는 “소련협상자들이 얼마나 영리한가”를 살펴보면 “서방측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소련협상자들은

날카롭기 보다는 대담하고, 교활하기 보다는 뻔뻔스럽다”는 결론을 얻었다. 즉 소련협상자들은 「탈레랑」의 기교를 갖고 있지 못하며 「마키아벨리」의 훌륭한 제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클레」는 소련이 주요협상에서 패배자가 된 다음의 5가지 실예를 들었다.

① 「물로토프」가 직접적이건 「유엔」을 통해서건간에 「마셜」계획에 소련을 포함시키지 못한것은 미국과 「유럽」의 전후부흥을 위한 분명한 진로를 다짐했다. 「스탈린」이 동의한 뒤 「물로토프」가 지연전술로 뒤따랐던 이 원칙합의는 서방국가들을 한데 뭉치지 않고 소련을 곤경에 빠뜨렸다.

② 「호르시초프」는 1957년 서방측에게 서「베를린」에서 물러나도록 최후통첩을 발송으로써 실수를 범했다. 이 통첩은 그가 무력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다. “역사는 「호르시초프」처럼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약하게한 고위정치가의 몇몇 선례를 자세히 말해준다”고 「이클레」는 논평한다.

③ 「호르시초프」는 또한 1960년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강화조약에 걸었던 희망을 깨버렸다. 그는 미국의 U2기 사건에 화를 내고 60년 5월 미·소경상회담을 결렬시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좋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④ 소련은 1962년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을 자멸시키는 것으로 믿었던 미국의 핵실험을 중지케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

소련은 당시 「케네디」미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유예기간 설정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비핵국가들에 대한 중대한 선진적 이득을 잃었을 뿐더러 미국의 핵실험을 금지시키지도 못했다.

⑤ 소련은 1947년 「자르」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에 자기 피에 넘어갔다. 「스탈린」은 「프랑스」가 「자르」지역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다른 문제에 관해 「프랑스」로부터 착취적인 양보를 고집한 결과 「자르」지역은 독일에게 돌아갔고 이것은 「스탈린」이 적극 막으려했던 독·불화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요컨대 “소련의 숙련되고 영리한 협상 「스타

일」은 신화임이 증명된 셈”이라고 「이클레」는 말한다. 그는 “그러나 소련의 협상실패의 대부분은 서방측의 약점을 이용하지 못한데 불과하므로 서방측 외교관들은 이러한 소련의 실수에 관해 지나친 낙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게다가 소련은 그들의 실수에 지나치게 번민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며 그러한 실수를 모험의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소련의 협상의 일환으로서의 모험 높은 도박이 시작되어 협상을 긴장완화의 수단으로부터 긴장을 폭발시키는 수단으로 전환시킬 수는 있는 것이다.

3. 중공의 협상모델

1953년에 「아더 H. 딘」대사가 미국대표로 한국휴전협상을 인수하려 관문점에 도착했다. 그의 선임자인 「해리슨」장군은 「공산주의자들과 어떻게 협상을 하는가?」라는 제목을 쓴 봉투하나를 그에게 주면서 나중에 혼자 열어 보라고 말했다. 그 봉투속에서는 「하지 말라(Don't)」라는 단어 1개만을 적은 종이 한장이 나왔다. 「딘」대사는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해리슨」장군의 시무룩한 「유머」는 일반인들간의 지배적인 견해는 물론 중국 공산주의자들 직접 경험한 미국인들간에 널리 퍼지고 있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관문점의 고참 미군대표였던 「C. 터너·조이」제독도 이와 같은 느낌을 표시했다. 「조이」는 중공의 협상에의 접근방법을 미국인들의 그것과 대조시키면서 야구에 비유해 설명했다. 「미국인들은 우선 경기를 할 장소와 경기개시시간 그리고 심판의 선정문제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공인들은 경기를 상해에서 밤에 열어야 하며 심판도 중공인 관리여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중공인들이 이같은 반응으로 나오는 그들의 협상교리와 행동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중공의 협상유형은 그 완고성에 있어 소련을 뺀 정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토대

에 바탕을 두고 있다. 중공군의 “해방군일보”는 1966년 7월 “상충하는 세계의 두 견해간의 날카로운 충돌에 있어서는 너도 나를 분쇄하지 못하고 나도 너를 분쇄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중공군 고위장교들이 읽는 61년의 한 비밀군보에는 “비양보태도는 미국측에 있지 중공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방상 임표는 그의 유명한 1965년 선언인 “인민전쟁승리만세”에서 “많은 국가의 인민들이 미제와 그 종족자들에게 대항하는 무기로서 인민전쟁을 획득하고 이용함이 절실히 필요해 졌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적대적인 인상은 소련의 성명보다도 약간 더한 신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로켓」전보보다도 “해방전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간의 경제력 및 군사력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해 준다. 그러나 소련문헌에서 인용될 수 있는 「레닌·스탈린」주의의 주객의 실마리(“Who-Whom” thread)가 오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공의 협상유형에는 중국인들이 옛날에 변방의 「만족」을 대하던 때와 똑같은 의혹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 「캐나다」의 신문기자 「찰스 테일러」는 중국황제에게 바쳐진 1844년의 한 청원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더우기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들과 조화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정한 잔치를 베풀어 친절히 대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교류함에 있어 너무 나지나치게 속을 털어놓은 관계의 수립을 삼가야 합니다.”

제국주의와 계급의 적을 보는 그들의 「마르크스·레닌·모택동」주의의 견해 밑바닥에는 전통적인 중국의 외국인 중요증과 중국인 우월의식이 그대로 깔려 있다. 「테일러」는 1966년에 외교관들은 실사 그들이 「프랑스」나 영국같은 우호국의 외교관일지라도 여전히 「만족」으로 간주되어 그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공에서는 외국문화사절단이나 동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외교관들보다 훨씬 중요시되고 있고, 또 더욱 따뜻한 환영을 받는다. 북경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나 그들의 생활태두리는 그들

의 처치와 해변휴양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발뺨을 하고 “고립”된 존재로서의 중공의 모습은 이외에 또 다른 두가지 상황에 의해 더욱 부각되어 왔다. 그 첫째는 중공이 창건된 이후 지난 25년간을 「유엔」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공이 「유엔」에 불참한 가장 큰 이유는 중공을 계속 「유엔」밖에 고립시켜 두려는 미국의 정책에 관해 수락될 수 있는 조건으로 「유엔」가입을 고려할 것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소련이 보여주고 있는 대조적인 「이미지」 때문이다. 「스탈린」 「브레즈네프」 「코시긴」의 소련은 적어도 외모로는 세계관계의 전면참여자로 발전해 가고 있으나 모택동의 중공당과 정권은 때로는 고의적으로 도전의식을 퍼뜨리었다. 작년까지도 소련은 그만큼 더 “이성적”인 공산주의자를 갈았고 중공은 그만큼 더 까다로운 존재로 보였다.

사실과 환상간의 간격이 그렇게 큰 때는 거의 없었다. 중공은 소련만큼이나 오랜동안을 그들의 적대자들과 협상해 왔다. 그들이 협상을 하고 또 협장에서 재주를 펴야 할 필요성은 부분적으로는 중공당이 창당된후 거의 20년동안 중공이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철박했었다. 또한 1949년 중국본토를 장악했을 때에도 그들의 힘이 아직 약했었다는 것도 그 부분적인 이유중의 하나이다.

기록은 대부분이 냉혹했다기보다는 효과적이었던 그들의 반세기 이상의 협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 유년 중공당은 1920년대초에 소련특사 「아브람·조혜」와 「미하일·보로딘」의 초언에 따라 창개적 국민당 정부와 국공합작에 들어갔다. 창개적은 1927년에 합작을 깬으며 이어 장기간의 「계털라」전이 뒤따랐다. 1936년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침략에 연합전선을 펴기 위해 다시 저안에서 협상을 하여 힘지벌통의 타협을 이룩했다. 새 국공합작도 양측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해 주진 않았다. 그래서 1947년에 미국특사 「조지·C. 마샬」은 다시 양측이 화담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모택동은 끝까지 창개적과 싸우키로 결심했던 것이며 「마샬」의 중개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후 정권을 장악한 중공당은 그들이 “전투와 회담, 회담과 전투”를 바탕으로 하는 모택동 전략의 유능한 실천자임을 입증했다. 그들은 한국전에서 승리를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미국의 핵무기사용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자 개성과 판문점의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에 동의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른 수단을 통한 전쟁을 수행했다. 「랜드」재단(RAND Corporation)의 연구는 「프랑스」를 상대로 한 인도지나전쟁을 1954년에 「제네바」의 협상으로 끌고 가기로 한 그들의 결정 내막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전쟁을 외교전술로 대치했던 것이다. 중공의 목적은 소련의 개입을 막고 협상을 벌리는 국제 회담에서 자국을 강대국으로 등장시키며 「월맹」이 자신의 영향권속에 있는 그 지역에서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 「평화공존」이념을 구가함으로써 기타 「아시아」국가들속에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중공이 주장하고 지원했던 인지전의 불완전한 해결은 중공의 이같은 모든 목적을 능률적으로 추구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공의 협상수완은 1년후 「반둥」회의에서 인도수상 「네루」 및 기타 「아시아」지도자들과 평화공존 5원칙을 협상할 때 다시 입증되었다. 같은해 중공협상대표들은 중공에 억류된 미국인포로에 관한 홍청을 하러 「제네바」로 갔다. 「제네바」회담의 미국인 통역이었던 「로버트 B. 에크발」대령은 중공인들은 자기들이 미국인과 더불어 조화를 증대시킴에 있어 통상금치 및 문화교류와 같은 문체들의 해결을 지향하며 결국 사실상의 승인은 물론 법적인 승인도 가져올 수 있는 의상급회담에까지도 달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데 천력을 다하고 있다고 썼다.

중공인들은 또한 역경에서는 이를테면 「금문도」와 「마초도」 등의 근해도에 관한 1958년의 위기가 승리로 해결될 수 없는 때와 같은 경우는 협상에 호소할줄도 알았다. 또한 「랜드」전문가인 「알리스·행리 시에」는 미국이 이들 도서의 군사적인 장악에 반대할 때세이소 소련도 미국을 봉쇄키 위해 천쟁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음이 분명해지자 「주은래」는 교착상태에 빠진 미·중공간의

「바르샤바」대사회담을 다시 열자고 제의했던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 동시에 국방상 「팽덕회」는 방송을 통해 국민당에 이 도서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은 중공협상유형의 다른 쪽 국면이다. 그것은 소련유형과 유사한 일종의 실용주의를 반영한다. 1940년에 모택동은 “우리는 적절한 순간에 멈추어 서서 이 특수한 싸움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적과의 단합을 모색하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1945년에는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들은 타협이 이익이 될 것이므로 여러 국제문제에 관해 아직도 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946년에는 “타협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에의 도달을 뜻한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언급한 1961년의 비밀근보는 “서방과의 협상가능성”에 관해 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국가들과의 일정한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비밀근보는 이어 일정한 합의가 가능해지자 “협상은 반재투쟁의 한 형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4년 「제네바」회담의 인도대표인 「아더·탈」은 「중공교리에 따르면 국제문제에는 협상을 통해 타협이 이루어지는 약간의 영역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는 견해를 견지했다.

예컨대 중공의 협상전략과 전술은 교조주의에서 실용주의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다. 「탈」은 45년의 「제네바」회담에서 “중공외교관은 대체로 매력있고, 민감하고, 호의적이며 심지어는 접근 가능한 인물이란 것”을 알았다. 「탈」은 바로 중공외교관이 그의 적대자들에게는 것처럼 자주, 것처럼 엉뚱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키 위해 집단협상을 벌이는 그들의 경향을 인용했다. 바로 그것은 신뢰성 있는 협상자들간에 고도의 화해를 건설하는 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다. 「탈」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다. “중공과의 관계가 아직도 좋았을 때 「델리」의 중공대사는 그의 무관심때문에 전 공관장들중에서 가장 소외당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상의 행동이므로 결코 국제문제에 있

어서의 그들 태도의 주요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인들이 직접대면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바는 이와 약간 다르다. 중공인들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상에 대해서는 사무적이었다고 「에크발」은 말한다. 그리고 일은 대체로 순조로웠다는 것이다. 이 협상에 미국대표로 나갔던 「U. 알렉시스·존슨」대사는 회의를장의 비형식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의자를 반원형으로 배열했는데 중공대표들이 회의실을 들로 갈라놓는 대좌형으로 의자를 다시 배치해 놓았다고 보고했다. 「아더·딘」의 회담은 그보다 훨씬 더 소란스러웠다 그는 판문점에서 1971년에 「유엔」주재 중공 제1대 대표가 된 「황화」를 마주 보고 앉았다. 「딘」은 1966년에 「황화」가 “늘 나를 제국주의 광패, 범죄자, 강도, 유리창도둑, 죽은사람 눈에서 잔돈을 훔쳐내는 좀도둑, 혈통없는 잡놈이라고 불렀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황화」는 「이승만」한국대통령, 「아이젠하워」미국대통령, 「덜레스」미국무장관을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나서 「딘」에게는 “손에 피칠을 하고 시궁창의 더러운 쓰레기속에 누어있는 살인마”라는 등의 욕을 퍼부었다 한다.

「케네스 T. 영」은 판문점과 「제네바」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중공인들의 협상수행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내용을 제시했다. 요컨대 그의 분석항목은 중공유형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의 한 예를 제시해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공협상자는 그 무엇보다도 「이데올로지스트」이다. 따라서 그의 협상에 대한 견해는 미국협상자들과 판이하게 다르고 심지어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

② 중공의 정책결정자들은 「미니·맥시」동시추구자들(Mini-Max' Operators)…그들은 약간의 전술적인 직접적 이익을 얻으려는 최소한의 바탕에서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중대양보를 얻어내려는 최대한의 장기적인 목표에서 미국과 흥정을 한다

③ 냉혹한 “적대적 흥정”과 여기에 중공이 어떤 합의의 도달에 관심을 보이는 양보적인 “집중

적 흥정"을 추가하는 것이 중공의 특색인 바 이것은 "협상의 2중적 개념"을 구성한다.

④ 접촉은 유지되어야 하나 합의가 모색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지극히 까다롭다" "1956년에 중공협상자들은 교묘하게 협상의 「이니시어티브」를 언론이나 문화분야의 접촉으로 전환했다. ... 주은래는 그당시 「덜레스」가 기자들에 관한 공동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 여론의 압력을 이용했다" 미국정부는 이를 "공감행위"라고 낙인찍고 물러나 버려 협상은 깨지고 말았다.

⑤ 잠정적인 폭발적 사태를 계속 통제하거나 보다 공식적인 흥정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중공의 행동을 적대국의 행동과의 일직선상상에 배열하는 데는 "독서책"이 이용된다. 금문, 마조도 사건은 전자의 예이며 1962년에 불행한 「라오스」 타협을 가져온 대사급회담에서의 교신은 후자의 사례이다.

중공의 협상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소련 것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약간 비합리적이며 앞으로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중공은 불과 최근에서야 「유엔」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둘째, 미국과의 관계도 최근에 와서야 거보를 내디디고, 셋째, 중공지도자들은 세계개입 확대계획을 준비중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보다 밀접하고 보다 인습적인 접촉을 모색함에 있어 많은 미해결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바로 전세계가 그 해답이 어떤 것일까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중공의 「이테올로지」의 칼날이 더욱 전통적인 활동으로 점점 더 날카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무디어질 것인가? 중공은 여러 나라 정부와의 자신의 거래와 국내에서의 인민 전쟁의 추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중공의 미국과의 협상은 중공과 소련간의 균열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공의 세계적인 역할이 중공의 국내정치 및 경제문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4. 협상지침

대공협상의 제 1 규측은 "협상은 긴 어려운 과업임"을 가정해야 된다는 「덜레스」 국무장관의 경고일는지도 모른다. 보다 짧고 보다 민첩한 진행을 지향하는 「웨스트팔리아」 이후의 경향은 역전되어 앞으로는 "끝없는 협상"과 같은 어떤 양상이 국제적 전망의 불가분의 한 측면이 될 때까지 계속 길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협상기술을 공부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어느 면에서 다소 이에 비판적이지만 그 누구도 미국이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서도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암시한 바는 없다. 「이클레」가 말한 바와 같이 「설사 우리의 상대자의 목적과 술수 때문에 여러가지 큰 애로가 생기겠지만 아직도 미국의교가 다소 숨쉴 있게 협상을 시도해 볼 여지는 남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은 미국접근방법의 어떤 변동이 보다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들의 일치된 견해는 협상을 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이다.

이들의 비판과 충고를 한데 모아 합쳐보면 무엇이 하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조잡한 지침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일련의 불변의 확고한 규칙이라기보다 차라리 채택해야 하거나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일련의 실용전술을 수반하는, 기본적인 미국식 접근의 바탕이 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가정을 포함한다.

가 정

① 협상은 그 자체가 거의 또는 전혀 아무런 타당성도 갖는 것이 아니다. 「존·그로노우스키」 대사는 1966년에 그가 미국대표로 나갔던 「바르샤바」 회담에서의 중공대표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 회담에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었으나 "이 회담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들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내놓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라이테스」씨의 소위 "긴장"을 줄이는 협상의 "순수한 힘"에 대한 「그

로노우스키「대사의 신뢰는 미국의 적국들과의 협상에서 나타나는 애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영국의 소련연구가 「베르나드·레위스」는 이러한 신뢰를 묘사하는데 2가지의 비유를 사용했다. 그 하나는 “강대국들이 재판에 때로는 참관인으로 때로는 판사나 변호사로 참석하는 법적인 또는 법정외의 아마지”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와 유치원에서 추락되는 개념으로 이것은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 또는 선생과 학생들에 있어서의 여러 힘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딘·애치슨」씨는 이 신뢰가 세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더욱 냉소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관은 신문 「칼럼니스트」이고, 「아시아」, 「아프리카」지도자들이 청중이 되는 고등학교의 토론적인 요소이다. 이 둘째요소는 「양키」의 말(馬) 흥정같은 것이다. 여기서는 「게임」자체의 중요성보다도 「게임」에서 술수를 써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강조된다. 셋째요소는 부흥회의 복음전도적인 것이다……“구원으로 통하는 형극의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핵자우불속의 천벌을 감수하라” “소련인들과의 협상에는 다른 길은 없다……”(속담)

공산주의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따라 협상을 다른 수단에 의해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간주하나 미국은 그것을 삼지어 하나의 고식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한 방편으로 보려 한다. 「애치슨」은 협상이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하나의 전술수단…… 즉 위험하고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는 대적 작전임”을 늘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레오나드·샤피로」는 협상을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수행해 온 그리고 자신의 국내 및 대외정책을 숨길 수 있게 하는 “겨장하고 성공적인 선전활동의 틀”속에서 설명한다. 「모슬리」는 소련의 팽창기간에서 나타난 결과는 “협상은 다만 자신의 압력에 반대하는 국가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목적만을 자닐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같은 고려에 비추어 「레위스」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관망하면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때가 있다”고 시사한다. 「편의와 도덕

양면의 테두리에서 볼 때, 행동이나 행동주의자들 무활동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② 협상은 제관계의 광범위한 결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공산주의자들도 이를 알고 있으나 미국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모슬리」는 지적했다. 세계제2차대전기간에 군사적조정에 관한 회담을 하러 미국군사절단이 「모스크바」에 갔다. 그러나 무기대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할 말이 없었다. “소련의외정책에 관한 그들의 행동에서 그같은 권위의 자치나 분열과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중공인들을 오랫동안 다루어 본 일이 있는 「영」은 미국인들이 그들과 더불어 한 시기에 하나의 주제를 택해 처리하려 했으나 실패하고만 예를 설명했다. “실용주의적 미국인들은 하나의 개별문제를 한없이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빼어내어 그 자체만을 다루기가 쉽다. 「마르크스」·「모택동」주의자들은 삼간을 정해놓지도 않고 문제를 분리하려 하지도 않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순간적이며 부분적이다” 「딘」은 또한 “군축회담에서 우선 우리가 조사해야 할 것은 「제비바」에서의 토의라기 보다는 차라리 동·서국가들간의 기본적 정치관계이다”라고 주장한다. 「애치슨」과 「이클레」는 공식협상 그 자체는 대부분이 흥정 「레이블」에서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동기와 역동기의 극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③ 협상은 국력의 한 직접적인 기능이다. 영국대사 「윌리엄·헤이터」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련인들은 웅변으로 설득되지도 않고 합리적인 토론으로도 설득되지 않는다. 그들은 「스타린」이 이야기하던 소위 국제정책과 힘의 계산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아무리 숨쳐있지 배 열되고 아무리 분명하게 반박할 수 없도록 증명된 것일지라도 그들이 당초에 결심한 것을 못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들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리한 대어도 없으며 그들이 하려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토마스·셸링」교수는 미국은 「카리브」해에 해병대를 파견하거나 월맹목표에 폭격을 하는

것 등이 협상과정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세튼·왓슨」은 협상의 목적은 대적자에게 그의 정책이 모든 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콩퀘스트」는 협상의 바탕으로서 서방의 물리적인 힘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고 「샤피로」는 물리적인 견제력이 약화되거나 감퇴될 때 공산권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과의 확대 접촉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실패하거나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은 “외교와 힘이 없이는 중공과의 협상이란 여의치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썼다. 그는 과거의 대중공관계의 위기를 재검토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인 해결을 더 바라면서도 중공에 압도적인 힘에 호소할 용의를 통고할 때 중공인들은 더욱 신중한 융통성으로 그 결과에 관한 협상에 임했다”고 논평했다. 「모슬리」는 힘이 확보되었을 때 협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서방의 교정책에서는 힘의 입장을 확보하는 것과 협상을 이용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힘을 확보하는 것과 협상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대안이 되는 것이거나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순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힘과 힘 뒤에 결심아 없는 협상은 좌절이 따르고 위험하며 나아가서는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다”.

④ 공산주의와의 협상목표의 넓은 공동영역은 없다. “공동의 목적에 언급함으로써 소련인들의 협력을 얻으려고 애써 보았자 소용없다”고 「케난」은 말한다. 그는 그들과의 강함을 회상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완전한 하나의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같은 공동의 공언에 바탕을 둔 주장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두둑으로 의심의 품게 된다”고 술회했다. 「에치슨」은 더욱 통명스럽게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협상과정을 통해 그들과 속셈을 확인하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극언했다. 또한 「모슬리」는 “소련협상자는 호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협상자가 애써 극

복해야 할 때에는 그보다도 훨씬 높다. 미국대표는 사실상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 「모스크바」에서 마련된 견해와 요구를 주장하는 지체적인 대변자로 간주해야 한다. 소련대표는 우호적인 접근에 따르기는 커녕 아마도 “제국주의자와 만민동포주의자의 영향력에 굴복하여 그 도로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할 것이다” 이같은 공포감은 토론자체는 교상하고 최소한 외국와 감정과 견해의 전달을 촉진시키지는 커녕 실제로 협상진행을 방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⑤ 공산지도자들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은 권좌로부터의 통제가 자극하 엄하기 때문에 ⑤는 아마도 전향목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에치슨」은 “소련관라들을 다루어 본 많은 미국대표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회상이 야유, 냉소적인 일화와 좌절과 자증을 불러 일으키는 협의에 지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나”고 반문하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어떤 실체의 개별적인 관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자문한다.

「레이터」도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소련통치자들과는 항구적인 진정한 개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은 벌써 여러해가 된 것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를 강력히 재확인해 준다. 예를 들어 「로버트·콩퀘스트」는 「흐루시초프」이후의 소련지도자들을 면밀히 연구한 끝에 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a) “공산지도자들이(실로 우리 지도자들과 똑같은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다소 같은 압력과 책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b) “현재 소련을 통치하고 있는 특정지도자는……저적으로는 3류이다.”

(c) 이같은 지도자는 단순한 말을 잘 이해하며 「예일」대학교수 「프레데릭·바군」이 소련에서 체포되었을 때 미국이 문화교류협정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위협한 것과 같은 직접적인 행

동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d) 소련과 서방체제가 다소 “유사하다”는 생각이 협상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e)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에 관한 이러한 오해는 서방인들간의 “좌파”독점물도 아니며 「우파」의 독점물도 아니다”

(f) 상대자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반응은 서방의 기준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과 흥정함에 있어 “체스”경기를 하려 하지 말아라.

(g) 협상과정에서 완강한 자세를 택하는 경우 그들의 분노를 겁내지 마라. 그들은 그런 것에 분개하지 않는다. 실로 그들은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레오나드·샤피로」는 서방인의 착각에 관해 이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4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a) 소련진영내의 의견대립은 그 지도자들의 지위를 크게 흔들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인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별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b) 소련과의 진정한 긴장완화란 망상이다. “소련은 평화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열전 또는 핵전의 회피에 관심을 갖는다……긴장완화 가능성에 대한 서방측의 신뢰는 긴장완화를 가져오기 위해 소련만 이득을 보고 그 대가는 전혀 보상하려 들지 않는 양보를 할 우려가 있다”

(c) “소련이 핵국인 중공이 두려워 미국과의 실제의 평화를 원하고 준비할 것이란 착각”을 경계하라. 소련의 우려는 실로 지극히 크다. 그러나 거의 자신의 기본태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

(d)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응집력의 와해로 소련의 위협이 제거되었다는 착각”을 버려라. 이같은 응집력의 와해는 분명히 서방에게는 유리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 “각국공산당은 최후수단으로 소련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을 막기 위한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된다. 이것은 신축성 있게 기술적으로 응용한

다면 서방협상자들로 하여금 그의 상대방과 똑같은 조건에서 회담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예비적 활동전술이다.

활동전술

① “원칙적인 합의”를 각별히 조심하라. “우리는 특히 준비축소 및 통제문제 등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 극히 전문적이고 상세한 합의와 검증통제를 필요로 한다” 만일 폭넓은 원칙성명이 필요하면 그것의 이용을 삼가고 “소련협상자가 이를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라. 그리고 만일 일련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원칙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맞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소련에서 훈련받은 협상자들은 국가이익을 확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 제반 원칙을 일정한 조정목표가 될 사실로 보기 때문이다”

② “속임수 의제”를 피하라. 「딘」은 “공산주의 협상자들에게는 의제를 위한 싸움은 기본적인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 최초의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굴욕을 줄 수 있고 또 이에 회담의 승패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들은 종종 정확하다”. 「조이」계독은 판문점이 거의 그러한 경우로 판명되었다고 회상한다. “우리는 의제를 작성하는데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은 미국협상자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세부사항에까지 빠져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출발지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대표단은 돌연 자신이 지극히 여러번 서투른 “힘늘음”과 군사력의 시위의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는 상대방의 함정에 빠져 있음을 깨닫곤 했다는 것이다. 「모슬리」는 소련과의 협상에서는 이미 협상이 시작될 때 그에 잇단 “장기간의 토의기간에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견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명확한 입장을 택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③ “공산주의자들의 수식학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라. 공산주의자들의 장황한 성명은 실상 어떤 중요한 알맹이를 전달하려는 것

이 아니므로 그것을 지나치게 진지하게 보아서 안된다”는 것이 「이클레」의 주장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상대방에 전달할 중요 「메시지」나 알려야 할 어떤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극히 짧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그 누구도 해방시키지 않는 “민족해방전쟁”이나 전혀 사회주의적이 아닌 “사회주의”국가들, 또는 「호루시초프」나 그 후계자들에게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서「베를린」의 “비정상적사태”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표현이 미국의 어의속에 침투, 어의상의 혼란을 야기토록 허용해서도 안된다. 「모슬리」는 미국인들이 로어나 중국어를 해독하여 번역의 동용한 「베일」에서 생기는 장애를 받지 않고 협의과정을 원어대로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동반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시사했다. 또한 영어단어가 로어에선 다른 뜻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어의 『강인한 또는 적극적 정책 (Rigorous or Aggressive Policy)』은 로어에서는 “위협적인” 정책을 의미하므로 수사학적으로 잘못 취급되면 협상의 전 과정이 봉쇄될 수도 있다.

④ 공산주의자들의 가열한 언동에 대비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케난」은 “상대방이 불결한 감정을 갖거나 의견차이를 공개하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충고했다. “소련인들은 소동과 추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어느 누가 그것을 꺼려 그것을 피하려고 비상한 노력을 할 것임을 알면 그들은 이를 한 형태의 공갈로 이용하려 한다” 「이클레」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불변의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국협상자들은 모두가 너무나 자주 “공산측에 수락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제안은 미리 내놓지를 않는다. 「이클레」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협상자와 정책입안자들은 사실상 우리제안을 수락되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정부의 입장은 협상의 영향하에서 다만 점진적으로 변경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락될 수 없는 요구」를 미리 삼가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해 버리고 만다”

⑤ 언제나 인내심을 발휘하고 또 어느 때 행

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라.

「모슬리」에 따르면 “협상을 시작하는 가장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조바심과 분노보다는 강력하나 억제된 감정을 지니는 것”이라 한다. 「케난」은 “만일 그들이 그들의 상대자가 흥정을 시도, 인내의 확고한 한계를 설정하고 · 그같은 한계가 조금이라도 침해될 때는 서슴치 않고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안다면 그들은 조심성 있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련인들은 상대방의 낮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어조의 완강도를 측정할 것이다”라고 「모슬리」는 보고했다. “그같은 「뉴앙스」들은 그들의 반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한다. 「케난」은 또한 “일빠진 호의의 「제스처」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제스처」는 그들의 계산을 뒤집어 얹어 여러 계산간의 균형을 깨고 말것이라 한다. “우리가 요구를 내놓아 그 요구가 그들에게 수락되지 않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우리의 불쾌감을 알게 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요구도 내놓지 마라” 그러나 공산측이 아무런 흥정 훈령도 받지 않았고 선전전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영」과 「모슬리」는 주장하고 있다. 「케난」은 때로는 더욱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벌칙이 보다 광범한 외교정책원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충들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한다.” 「영」은 이것을 “보복협상”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분명하고 특수하며 스스로 강요하는 상호적인 타협”을 추구한다. 「이클레」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협상자들은 영터리변호사처럼 집중적으로 세부사항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며 기본목적은 그들의 전술적인 제국면의 제물로 바쳐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⑥ 공산주의자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어내라. 「모슬리」는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 확실할 때는 상대방에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는 소련협상자들은 합의에 도달키 위한 어떤 압력밑에서도 그들 훈령의 미소한 또

는 중대한 부분을 어기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공포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그들 초안의 모든 항목과 용어를 모두 관철시킬 수 없음을 「모스크바」에 보고하기를 지극히 망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것은 경우 변경을 요하는 제안을 내놓으면 그것은 그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된다.

「유럼」자문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때때로 소련인들에게 그들 본국정부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이 계속 질질 끌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를 없앨 기회를 제공해줄 구실을 마련해야 한다. 「케난」은 미국협상자들에게 문제를 소련협상자들을 제쳐놓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들고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와는 달리 미국협상자들은 소련대표들에게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수준에서 충분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들의 관료체제에 「사보타주」의 길만을 열어줄 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⑦ 상대자와 “사이 좋은 행위”를 하지 말라. 「케난」은 소련관리들을 “외국인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 그들 자신의 인민들 앞에 나가는 것에 셋ickl은 공포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딘」은 미국인들의 지적관계에 대한 갈망을 중국인들과 연결시켜 말하고 있다.

그는 관문점에서 미국의 전형적인 관행에 따라 중공대표들과 협상「테이블」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의견을 나누려 애썼다. 그러나 그와 「워싱턴」의 그의 장관들은 모두 중공대표들이 이를 거부한데 크게 실망했었다.

⑧ 개인적인 것이든 공적인 것이든간에 미국의 모든 행동을 초청하라. 조현인들은 “우리 정부위원이나 국민들의 비공식적인 목적의 추구와 의견갈등, 불화 등을 이용하는데 지극히 민첩하다”고 「케난」은 지적했다. 그를 제치는 확실적이고 규율이 강하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가능한 온갖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요약 및 결론

상기의 모든 가정과 조언은 검증, 입증된 법칙이라기보다 차라리 신축성 있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서로 상충하는 협상자세를 나타내 준다. 그것은 「버네스」의 말대로 지력과 힘, 멋과 인내가 모두 우리에게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지극히 복잡한 상황에서 제기된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협상문서와 그 수행자와에 접한 서방인의 경험에서 나온 증거물로서 전문가들은 거기서 자기 자신의 방법을 끄집어 내고 일반인들은 자기 자신의 추론을 도출하는 지침들이나 것이다.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일반적인 결론이 부각될 수 있다.

첫째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의 결여 그 자체는 공산·자유 두 세계가 아직도 서로를 탐색하는 비교적 초기단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들의 협상유형은 그들간의 두드러진 관계가 여전히 큰 간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현단계에서 일정 규칙을 통해 더욱 확고한 어떤 것이 설정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훨씬 현실주의에서 출발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저방은 소련과 협상은 하나의 기술 즉 정치적인 기술이라는데 거의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협상의 미완성적 성격과 그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진정한 방법이며 목적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가로놓여 있음을 지적해 준다. 협상자가 이미 협상철차의 유일한 기술차가 아니라 할 때 그의 기술과 이 지침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중요하다.

세째(가장 중요함) 공산·자유세계간의 협상은 군사적인 대결이나 충돌가능성을 포함하는 힘의 대용물이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과거의 세번된 협상유형의 절정기에서도 전쟁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협상이 어떤 힘이나 권력 및 의지의 계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다른 기능과 결과를 지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시기는 실제로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극히 멀다. 협상행위는 그 시기를 앞당길지도 모르나 수락할 수 있는 분쟁의 형태가 분쟁을 계속하는 수단이며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이 그같은 시기의 도래를 지연시킬 것이다. 아무튼 협상이 진정한 친교란 말에는 거의 신뢰가 가지 않을 것이다.

「웨브스터」사전은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이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겠지만 “협상(Negotiate)”

이란 개념에 두가지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소련측에서 더 좋아하는 “거래를 수행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회담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접근법이다. 서방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로는 협상기술은 소련의 “거래”를 그 자신의 “어떤 문제의 해결”로 전환시키려 노력함을 뜻한다. 이러한 양상에서의 기술의 추구가 1970년대와 그 이후의 서방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